

The Gospel of Mark

Sermon 44 – Sermon Notes

Title: “The danger of money and materials”

Scripture: Mark 10:17-22

Date preached: July 9th 2023

Scripture: Mark 10:17-22

17 Now as He was going out on the road, one came running, knelt before Him, and asked Him, “Good Teacher, what shall I do that I may inherit eternal life?”

18 So Jesus said to him, “Why do you call Me good? No one is good but One, *that is*, God.

19 You know the commandments: ‘Do not commit adultery,’ ‘Do not murder,’ ‘Do not steal,’ ‘Do not bear false witness,’ ‘Do not defraud,’ ‘Honor your father and your mother.’ ”

20 And he answered and said to Him, “Teacher, all these things I have kept from my youth.”

21 Then Jesus, looking at him, loved him, and said to him, “One thing you lack: Go your way, sell whatever you have and give to the poor, and you will have treasure in heaven; and come, take up the cross, and follow Me.”

22 But he was sad at this word, and went away sorrowful, for he had great possessions.

17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선한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18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대답하셨다.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 이시다. 19 너는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남을 속여 빼앗지 말아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고 한 계명들을 아느냐?”

20 그러자 그는 “선생님 저는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하였다.

21 그때 예수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네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어라. 그러면 네가 하늘에서 보물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22 그러나 그는 재산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 버렸다.

Review

Before we look in some detail at today's passage of scripture let us review what we looked at last time.

It was the occasion on which Jesus was approached by various people seeking His blessing for their little ones. Since Mark does not specify where exactly these events took place we must assume that the Lord Jesus was still in the region of Perea. Exactly how long after Jesus' confrontation with the Pharisees over the issue of divorce is also not stated. Perhaps it was the following day, or several days later. Whatever the case what happened on this particular occasion was interesting.

Some people reading this short incident perhaps conclude that it is just a nice anecdote that demonstrates the love and compassion of our Lord and saviour. It is included in scripture to show us how much Jesus loved little children.

Some may wrongly conclude therefore that in terms of the many individual events that made up the life of our saviour this one is rather unimportant. This would be a big mistake. We would do well to remember that Matthew, Mark and Luke guided by the Holy Spirit all recording it in their gospel accounts. Therefore it's included for a reason and warrants our careful reading and study. Let us briefly review what happened.

Mark tells us that the Lord Jesus was approached by a number of unspecified people and their children. These people may have been fathers, mothers, older siblings, grandparents, other family members or just family friends. They approached the Lord Jesus with a particular purpose. They wanted Him to "touch" their children. This is shorthand for saying they wanted Him to pray over or

bless their little ones. This was a common practice in Judaism. People would take their children to be blessed by prominent rabbis at the synagogue. In fact there was even a special day set aside specifically for this practice, it was the day before the Day of Atonement, the day before Yom Kippur. So it was not at all strange that they should seek out the Lord Jesus and make this request.

The Lord Jesus was very happy to receive the children. They ranged in ages from babes in arms to perhaps 12 or 13 years of age. Whatever their ages they were drawn to Jesus, and He enthusiastically welcomed them. Unfortunately the disciples were not so enthusiastic. They rebuked the people bringing their children and ordered them to stop approaching Jesus. Why did they do this? The reason is not stated specifically. Probably they thought they were assisting Jesus. He was a busy, and important man. His time was valuable. He had no time to waste dealing with insignificant and unimportant people like children. We have spoken before about the prevailing attitudes in the first century towards children. They were looked down upon, often ignored and not really considered full or proper members of society. So the disciples don't want the children tying up Jesus and wasting His time.

The Lord Jesus is not at all happy with the disciples. He was irate with them. He had good reason to be. He came to die and reserve a place in the Kingdom for a whole range of people. The kingdom was not just for the rich, the sophisticated and the important. The kingdom was home to all kinds of people including children. Therefore the disciples had no right to hold back citizens of Christ's Kingdom from coming to their king.

He then went on to provide an important lesson for all believers. The lesson regards what kind of attitude God expects from those seeking entry to His free gift of salvation. The Jews operated under a system known as "Works righteousness." Basically this meant that they believed entry to God's Kingdom depended on the work or effort you put in. Whether you were saved or not depended upon you. You effectively had to earn your salvation. We shall see this demonstrated later when the rich young ruler approaches Jesus.

As an aside this is what distinguishes every man made religion from Christianity. In every other religious system human beings must "work" in order to earn their way to "salvation." In the one true faith salvation comes as a gift that God bestows upon human beings. It is God who saves and His decision to save is not influenced in any way by our own work or effort. Billy Graham summarizes very neatly how Christianity differs from every other religion.

In every other religion people are searching for God. In Christianity God is searching for us.

For the Jews in Jesus day, and still today you earned Gods' favour by strictly following the huge number of laws and traditions that governed every aspect of life.

So in the Jewish mind when you approached God you carried before you all of your hard work and achievements. In effect, you said to God, "Look, see all these things I have done, surely I have earned salvation."

Little children of course could not follow the complex laws of Judaism. So they approached God empty-handed, expecting nothing. Knowing that they had nothing to give but coming just with hope and expectation. This Jesus says is the right attitude. Those that want God's mercy must come humbly and innocently like children. Knowing that they don't deserve God's grace but trusting that God will bless them despite their failings.

The account ends with the Lord Jesus wrapping His arms around the children and blessing them. What a beautiful picture this gives us of the loving compassion our Lord and saviour.

Today we will see how Jesus responds when a rich young ruler asks what he must do in order to be

saved. Before we look at this would you join me in prayer.

오늘의 성경 구절을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을 복습해 봅시다.

아이들을 위한 예수님의 축복을 구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마가는 이 일이 어디서 일어났는지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주 예수께서 여전히 페리아 지역에 계셨다고 추정합니다. 이혼 문제에 대해 예수께서 바리새인들과 대결하신 후 정확히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 다음 날이었을 수도 있고, 며칠 후였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이든 이 경우에 있었던 일은 흥미로웠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짧은 이야기를 읽고 그것이 단지 우리 구세주 예수님의 사랑과 연민을 보여주는 일화일 뿐이라고 결론을 내릴 것입니다. 이 케이스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성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우리 구세주의 생애를 구성한 많은 개별적인 사건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다소 중요하지 않다고 잘못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큰 실수입니다.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 모두 이 이야기를 복음서에 기록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의 깊게 읽고 연구해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는 다수의 사람들과 그들의 자녀들이 주 예수께 다가갔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아버지, 어머니, 형제자매, 조부모, 다른 가족 구성원 또는 가족 친구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주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들은 그 분이 어린아이들을 "만지시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은 그분이 그들의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거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한다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이것은 유대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관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회당에서 저명한 랍비의 축복을 받기 위해 자녀를 데려왔습니다. 사실 이 관행을 위해 따로 정한 특별한 날도 있었는데 속죄일 전날, Yom Kipur 전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주 예수를 찾아 이런 간구를 한 것이 조금도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주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맞이하는 것을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팔에 안긴 갓난아기부터 아마도 12~13 세에 이르기까지 연령 범위가 다양했습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그들은 예수님께 끌렸으며 그분은 그들을 진심으로 환영하셨습니다. 불행하게도 제자들은 그렇게 열정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이들을 데려오는 사람들을 꾸짖고 예수께 가까이 가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돕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는 바깥에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시간은 소중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하찮은 사람들을 상대하느라 낭비할 시간이 없다고 우리는 이전에 1 세기에 어린이들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멸시를 받았고, 종종 무시당했으며, 진정으로 사회의 완전한 구성원으로 간주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아이들이 예수님을 차지하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주 예수님은 제자들에 대해 전혀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회를 냈습니다. 그럴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죽으시고 왕국에서 자리를 준비하기 위해 왔습니다. 왕국은 부유하고 교양 있고 중요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국은 아이들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사람들의 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그리스도 왕국의 시민들이 그들의 왕에게 오는 것을 막을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계속해서 모든 신자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이 교훈은 하나님께서 가져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태도를 기대하시는데 관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의를 행한다"는 제도 아래에서 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당신이 하는 행위나 노력에 달려 있다고 믿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당신이 구원을 받으려면 당신이 받으려 하는 것, 당신이 행위로써 구원을 얻어야 했습니다. 오늘 설교 내용에서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님께 접근할 때 이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만든 다른 모든 종교와 기독교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 체계에서 인간은 "구원"에 이르기 위해 "알"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 참된 믿음인 기독교에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선물로 옵니다.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구원에 대한 그분의 결정은 우리 자신의 일이나 노력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빌리

그러함은 기독교가 다른 모든 종교와 어떻게 다른지를 다음과 같이 깔끔하게 요약합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삶의 모든 측면을 지배하는 수많은 율법과 전통을 엄격히 따름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관점에서 당신은 하나님께 다가 갈 때 당신의 모든 수고와 업적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들은 하나님께 “내가 행한 이 모든 일을 보십시오. 나는 분명히 구원을 얻었습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물론 어린 아이들은 유대교의 복잡한 율법을 따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빈손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들이 줄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단지 희망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러한 태도가 옳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원하는 자들은 어린아이들처럼 겸손하고 순수하게 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음을 알지만 그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라는 믿음으로 말입니다.

Introduction

We believe that Mark was guided and inspired by the Holy Spirit as he compiled his gospel. This means of course that everything included is significant and important. This naturally includes the particular words and phrases used, but it also includes where things are placed or positioned in the gospel. Today's story is no exception. It is entirely possible that the events did occur sequentially as presented in the gospel. Equally, what we may be seeing is Mark arranging the events so that we see a nice thematic flow. We should I think see a logical connection between the events. Let me explain.

We have just seen the Lord Jesus approached by little children. The Lord Jesus took this occasion as an opportunity to teach us about the importance of receiving the Kingdom with trust and humility. God wants us to receive Him in just the way children make an appeal or approach to an adult. Little children come with nothing. They are completely dependent upon the person they are approaching. Here we will see Jesus point beautifully illustrated. He is approached by a man who does not come like a humble and expectant child. In fact, he comes with exactly the opposite attitude to that which the Lord Jesus just taught the disciples. Let's get into the account now.

우리는 마가가 그의 복음서를 기록했을 때 성령의 인도와 영감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기록된 모든 것이 의미있고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사용된 특정한 단어와 문구도 중요하지만 이야기가 어떻게 어디에 배치되었는지 또한 중요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도 예외는 아닙니다. 사건들이 복음서에 기록된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일어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제의 흐름을 효과적으로 따라가도록 일어난 사건들을 마가가 배치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건들 사이의 논리적 연결을 보아야 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설명하겠습니다.

우리는 방금 어린아이들이 주 예수님께 다가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 예수님은 이것을 믿음과 겸손으로 왕국을 받아들이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가르치실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가 어른에게 호소하거나 접근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다. 어린 아이들은 아무 것도 없이 옵니다. 그들은 접근하는 사람에게 완전히 의존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요점이 절묘하게 묘사된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겸손하고 기대하는 아이처럼 오지 않는 한 남자가 다가옵니다. 그는 예수께서 방금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과 정반대의 태도로 옵니다.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17 Now as He was going out on the road, one came running, knelt before Him, and asked Him, “Good Teacher, what shall I do that I may inherit eternal life?”

As the Lord Jesus is travelling along the road one day He is approached by a rich young ruler. We are talking here about a fine and respected man of the community. You may wonder how we come to this conclusion given what Mark records. Once again we have to compare the differing accounts given in all three synoptic gospels. It's a little like reading multiple witness accounts to a road traffic accident. The first witness can remember the makes and models of cars were involved. The second

witness recalls the colours of the cars and the weather conditions at the time. The third witness noticed some of the bystanders who saw what happened. When we put all three statements together we get a more complete picture.

So all three accounts in one way or another comment about the man's wealth or material possessions. This is important. He was a materially rich man. The whole story balances upon this point of tension.

In Luke's gospel we are told that the man was a “ruler.”

Now a certain ruler asked Him, saying, “good Teacher, what shall I do to inherit eternal life? (Luke 18:18)

The word translated at “ruler” here is the Greek word *archon* (ar'-khone). Depending on the context it may refer to a ruler, commander, chief, magistrate, prince or leader. Some commentators have interpreted this to mean that he was a “leader” in the synagogue. Not a scribe and perhaps not even a Pharisee but rather a lay leader. He was what is typically referred to as an elder.

So we know the man was rich and a ruler, but what about his age? Well in Matthew's gospel we read.

The young man said to Him, all these things I have kept from my youth. What do I still lack? (Matt 19:20)

The term **young man** here is a translation of the Greek *neaniskos* (neh-an-is'-kos). It refers to a youth, a young man or a young attendant or servant. It was used to describe someone under the age of 40.

So this rich young ruler came running to the Lord Jesus and knelt before Him. This demonstrates his great eagerness to meet Jesus and probe Him for information. The fact that he ran and then knelt or bowed before Jesus show his fervent belief that Jesus had the answers to life's most challenging questions. He does of course, the answers to all life's difficult problems are found in Christ. It's also significant that he ran. In the ancient middle eastern world important people, people of high rank or status didn't run. It was considered shameful or demeaning for a man to lift up his robes and expose his legs except in an emergency. I suppose the same holds true today. We wouldn't expect the president to run, even if he were late for a meeting!

His approach shows that he had great respect and admiration for Jesus. This is further reflected in the way he addresses the Lord Jesus.

“Good Teacher.”

This might not strike us today as odd or strange. But in Jesus' day this was a very unusual form of address. The term “good teacher” was never applied to rabbis in Jesus' day. There was a good reason for this. It was because the term implied “sinlessness,” a “complete goodness.” No rabbi would ever claim such a title for themselves. Only God was called good by ancient rabbis. In saying this the rich young ruler seems to be acknowledging Jesus as both a legitimate, and a good teacher. Let us consider his question.

“What shall I do that I may inherit eternal life?”

He wants to know how he might take possession of eternal life. Or more specifically what actions does he need to perform in order to be guaranteed eternal life. His question is interesting for at least two reasons. Firstly many Jews in the first century believed that they had eternal life simply because they were the children of Abraham. So it's significant that he at least appreciates that at the present time he does not actually possess eternal life. Secondly his question implies that he believed that eternal life could be earned or deserved. As we have spoken about before this was the commonly held view in the Judaism of his day.

Many people today also subscribe to such a view. Many seem to think that God weighs up the good and bad they've done throughout their lives. They're often not that concerned because they imagine

that the good outweighs the bad. They therefore conclude that God will show them mercy. People who have such a view are one day going to be greatly shocked.

So there was much to commend this rich young man. He ran eagerly to Jesus. He showed great respect. His question showed he understood what was truly important. There is no deeper or more significant question we can ask than how we might be saved. And yet, there was a problem.

He didn't really want Jesus to be his saviour, what he wanted was Jesus to show him how he might be his own saviour. Let us read on.

17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선한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어느 날 주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한 부자 청년 관원이 그분에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여기서 지역 사회에서 훌륭하고 존경받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마가가 기록한 것을 볼 때 어떻게 이런 결론에 도달했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우리는 세 개의 공관 복음서 모두에 주어진 서로 다른 설명을 비교해야 합니다. 교통사고에 대한 여러 증인의 이야기를 읽는 것과 조금 비슷합니다. 첫 번째 목격자는 관련된 자동차의 제조사와 모델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목격자는 차량의 색깔과 당시 날씨 상황을 기억합니다. 세 번째 목격자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목격한 구경꾼들 중 일부를 알아차렸습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합치면 더 완전한 그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 가지 기록 모두 어떤 식으로든 그 사람의 부나 물질적 소유에 대해 언급합니다. 이걸 중요합니까? 그는 물질적으로 부자였습니다. 이 것이 전체 이야기의 균형을 잡는 중심점입니다. 누가복음에서 그 사람이 “통치자 ruler”라고 말합니다. **어떤 관원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궤 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누가복음 18:18)**

여기에서 “통치자 ruler”로 번역된 단어는 그리스어 아르콘(ar'-khone)입니다. 문맥에 따라 통치자, 사령관, 주장, 판사, 왕자 또는 지도자를 가리킬 수 있습니다. 일부 주석가들은 이것을 그가 회당의 “지도자”였다는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사기관도 아니고 아마도 바리새인도 아닌 평신도 지도자일 것입니다. 그는 일반적으로 장로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남자가 부자이자 통치자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의 나이는 어떻습니까? 마태복음에서 기록하기를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은 궤 궤 어려서부터 저가 있나이다 나는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마태복음 19:20)**

여기서 젊은이라는 용어는 그리스어 neaniskos(neh-an-is'-kos)의 번역입니다. 그것은 젊은이, 젊은 남자 또는 젊은 수행원이나 하인을 말합니다. 40 세 미만의 사람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 관원은 주 예수께 달려와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만나서 원하는 정보를 물어보려는 그의 열의를 보여줍니다. 그가 달려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거나 절했다는 사실은 예수님이 인생의 가장 어려운 질문에 대한 답을 갖고 계시다는 그의 열렬한 믿음을 보여줍니다. 물론 삶의 모든 어려운 문제에 대한 답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합니다. 뛰었다는 점도 의미심장합니다. 고대 중동 세계에서 중요한 인물, 자유가 높은 사람은 뛰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비상시를 제와하고 옷을 들어올리고 다리를 드러내는 것은 치욕적인 일로 여겨졌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회의에 늦더라도 대통령이 달리지는 않을까요?

그의 접근 방식은 그가 예수에 대해 큰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 줍니다. 이것은 그가 주 예수님을 부르는 방식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선한 선생님”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시대에 이것은 매우 특이한 형태의 호칭

이었습니다. “선한 선생”이라는 용어는 예수님 시대에 랍비에게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는 죄가 없음, 완전한 선함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랍비도 스스로 그런 칭호를 주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고대 랍비들에 의해 선하다고 불렸습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부자 청년 관원은 예수를 정당하고 훌륭한 선생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의 질문을 고려해 봅시다.

“□□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는 영생을 얻는 방법을 알고 싶어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영생을 보장받기 위해 그가 행해야 할 행동은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그의 질문은 적어도 두 가지 이유로 흥미롭습니다. 첫째, 1 세기의 많은 유대인들은 단순히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미 영생을 가졌다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 청년이 실제로 영생을 얻지 못했다고 평가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그의 질문은 그가 영생이 행위로서 얻어지는 거라고 믿었음을 암시합니다. 우리가 전에 말했듯이 이것은 그 당시의 유대교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견해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그러한 견해에 동의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평생 동안 행한 선과 악을 평가하신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좋은 점이 나쁜 점보다 더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다지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실 것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한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언젠가는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을 칭찬할 것이 많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간절히 달려갔습니다. 그는 큰 존경심을 보였습니다. 그의 질문은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보다 더 심오하고 중요한 질문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자신의 구원자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원한 것은 자신이 자신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길 원했습니다. 계속 읽어 봅시다.

18 So Jesus said to him, “Why do you call Me good? No one is good but One, *that is*, God.

Jesus and everyone else who was within earshot recognized that He was being called by a unique title. Christ does not rebuke the young man for using this term. It is after all absolutely appropriate. So some may wonder why the Lord Jesus answers like this. He could have just answered and said, “You are right, I am indeed good.” But remember that Mark is presenting Jesus to us as a suffering servant. Servants do not get an opportunity to boast about their skills or expertise. Also we know that Jesus was trying to conceal His messianic identity. When we factor in these things His answer is quite understandable. So don't be puzzled or confused. Jesus was not denying His deity here. But He does want the man to carefully consider the way he had just addressed Jesus.

Why do you call me good? No one is good but One, *that is*, God.

So he's asking this young man why he chose to call Him good. After all he doesn't know Jesus, He is a total stranger known to him only by reputation. So why Jesus asks, are you calling me good? Is it because you see me as being a “good” or righteous truth telling teacher, or is it because you recognize me as the “divine” teacher, the only one who is truly good. If the man does indeed really understand who he is speaking to it must surely and dramatically impact how he responds to Jesus' words.

What advice does the Lord Jesus give to this man? Let us read on and find out.

18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대답하셨다.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예수님과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그분이 독특한 칭호로 불리고 있음을 인식했습니다. 그라스도께서는 이 용어를 사용하는 청년을 꾸짖지 않으십니다. 그건 절대적으로 적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대답하시는지 의아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네가 옳다. 나는 진정 선하다.”라고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가는 예

수를 고통받는 종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종은 자신의 기술이나 전문성을 자랑할 기회를 찾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께서 자신의 메시아 신분을 숨기려고 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이러한 것들을 고려할 때 그의 대답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황하거나 혼란스러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여기서 자신의 신성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 청년이 방금 예수님을 부른 호칭을 주의 깊게 고려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나를 선택하고 하느냐? 선택 받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예수님은 이 청년이 왜 그를 선택하고 부르는지 묻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평판으로만 들은 완전히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기를 '왜 나를 선택하고 부르느냐? 나를 선택한 또는 의로운 진실을 말하는 선생으로 보기 때문이냐, 아니면 나를 진정으로 선택한 유일한 신성한 선생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냐?' 그 청년이 자신이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지 진정으로 이해한다면 그가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확실하고 극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어떤 충고를 하셨습니까? 계속 읽고 알아보시다.

19 You know the commandments: 'Do not commit adultery,' 'Do not murder,' 'Do not steal,' 'Do not bear false witness,' 'Do not defraud,' 'Honor your father and your mother.' "

Jesus pointed the young man to the law of Moses (Ex 20:1-17, Dt 5:1-21). As an elder and ruler in the synagogue this young man would have been very familiar with these portions of scripture. No doubt he had them memorized. We see here Jesus present a condensed summary of the second table of the law. The first table of the law, the first four commandments deal with man's relationship to God. The second table, the last six commandments address our relationships with one another. The interesting one here is the command not to "defraud," which replaces the tenth commandment not to "covet." The Lord Jesus may have intentionally done this because a wealthy person like this man may well have gained his wealth at the expense of others, which is a type of coveting.

It's important to recognise that the Old Testament did teach that if a person kept the Mosaic Law he would live (Deut. 30:15-16). This means that it was theoretically possible to keep the law and gain eternal life. But don't get too excited. When we looked at the Sermon on the Mount we noted that God's standards required not just perfect external adherence but also perfect internal adherence. So for example murder should not be viewed as just the actual act of taking someone else's life. We are equally guilty of murder if we think hateful thoughts about someone. So whilst theoretically possible, in practice it is impossible to perfectly keep the law. None of us can earn our own salvation. The law then acts like a mirror. When we look in the mirror it reflects back to us how fallen and dirty we are. But, and this is the key, the mirror cannot wash or cleanse us of our sins. The law helps us see our sins and then brings the sinner to Christ. This of course was the issue here. This man was not looking to Christ to be his saviour.

He was looking for advice on how to be his own saviour. Let us see how he responds to Jesus words.

19 너는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남을 속여 빼앗지 말아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고 한 계명들을 아느냐?

예수님은 청년에게 모세의 율법을 일깨워 주십니다(출 20:1-17, 신 5:1-21). 회당의 장로이자 통치자로서 이 젊은이는 이러한 성경 구절에 매우 익숙했을 것입니다. 의심할 바 없이 그는 그것들을 외웠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율법의 두 번째 돌판의 요약본을 제시합니다. 율법의 첫째 판인 처음 네 계명은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돌판, 마지막 여섯 계명은 사람 간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흥미로운 것은 "모든 것"은 열 번째 계명을 대체하는 "남을 속여 빼앗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주 예수님은 이 사람과 같은 부자가 탐욕의 한 유형인 다른 사람들의 화생으로 자신의 재물을 얻었을 수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구약성경이 사람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면 살 것이라고 가르쳤다는 것은 중요합니다(신명기 30:15-16). 이것은 율법을 지켜 영생을 얻는 것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너무 흥분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산상 수훈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기준은 완전한 외적 준수뿐만 아니라 완전한 내적 준수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살인은 단순히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만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 미워하는 생각을 한다면 똑같이 살인죄를 짓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중 누구도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율법은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타락하고 더러운지 반영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거울은 우리의 죄를 씻거나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죄인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그의 구세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자신의 구세주가 되는 방법에 대한 조언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봅시다.

20 And he answered and said to Him, “Teacher, all these things I have kept from my youth.”

Is this the answer the man expected? Perhaps he is a little disappointed that Jesus had offered him such a predictable answer. Maybe he was expecting a far “greater set of challenges” that he must accomplish. Or maybe there is some pride in his answer. Well, if that's all there is to it I'm well on the way to inherit eternal life.

At the age of thirteen every Jewish boy becomes *Bar Mitzvah* meaning a “son of the commandment.” From this age he becomes responsible to live by God's commands. So this is the claim of this young man. Since the age of 13, he tells Jesus (the teacher) he has kept the law as given to Moses. It's doubtful I think that this young man is claiming to have lived a sinless life since the age of 13, but rather that he has remained faithful and sincere in trying to keep God's commands. Is such a claim possible? Or is this simply an arrogant boast.

Well to answer that question we need to appreciate how the law of Moses was interpreted by the Jews at this time. According to the strictly literal understanding of the laws that the Jews followed it was indeed possible. Let us take for example the law related to adultery. In Exodus 20 verse 14 we read.

You shall not commit adultery.

How was this law understood by the Jews? Well, if as a married person you had sexual relations with someone who was not your husband or wife you were guilty of committing adultery. So provided you didn't do this you remained inside the law. The Lord Jesus fully clarified this law in the Sermon on the mount (Matt 5:27-30). He told His hearers that the law on adultery went beyond the actual physical act. A person was guilty of adultery when they had impure thoughts about someone to whom they were not married. So when the true meaning of the laws is examined we recognise that it is impossible for human beings to keep them. The standards are just too high.

The man should have responded by saying, “There is no way I have kept, or can keep the law of God completely. I need a savior.” Let us see how Jesus responds.

20 그러자 그는 “선생님, 저는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하였다

이것이 그 사람이 기대한 대답입니까? 아마도 그는 예수께서 것처럼 예측 가능한 대답을 제시하신 것에 대해 약간 실망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자신이 성취해야 할 훨씬 더 큰 도전을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그의 대답에 자만심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게 전부라면 나는 이미 영생을 상속받을 길을 잘 가고 있습니다.

13 세가 되면 모든 유대인 소년은 "계명의 아들"을 의미하는 Bar Mitzvah 가 됩니다. 이 나이부터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청년의 주장입니다. 그는 13 세 때부터 모세의 율법을 지켰다고 예수

남(선생님)에게 말했습니다.

이 청년이 13 세 이후로 죄 없는 삶을 살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려고 노력했다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주장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이것은 단순히 오만한 자랑입니다.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당시 유대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따랐던 율법에 대한 엄격한 문자적 이해에 따르면 그것은 참으로 가능했습니다. 예를 들어 간음과 관련된 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 장 14 절에

간음하지 말라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결혼한 사람으로서 남편이나 아내가 아닌 사람과 성관계를 가졌다면 간음을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율법을 지킨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산상 수훈에서 이 율법을 완전히 밝히셨습니다(마 5:27-30). 그분은 청중들에게 간음에 관한 법은 실제적인 육체적 행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배우자가 아닌 사람에 대해 불순한 생각을 품은 사람은 간음을 범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살펴보면 인간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기준이 너무 높습니다.

그 청년은 이렇게 대답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켰거나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봅시다.

21 Then Jesus, looking at him, loved him, and said to him, “One thing you lack: Go your way, sell whatever you have and give to the poor, and you will have treasure in heaven; and come, take up the cross, and follow Me.”

The man's answer showed his sincerity. He had obviously been taught and instructed that this rigid adherence to the laws was the way to earn salvation. The Old Testament taught that God normally blessed the righteous with physical prosperity. So this rich young ruler probably saw his wealth and riches as evidence that he was doing well and that God was blessing him. Or more simply that he was acceptable to God,

For all of his adult life he had earnestly tried to obey the laws and please God. Jesus looked at him carefully, perhaps assessing his genuine sincerity or his earnestness. Whatever Jesus saw it touched Him, and He was filled with love and compassion. To an outsider looking at this man from a worldly vantage point we would say that he had everything. He had climbed the social ladder at a young age. He held a place of authority and status. He was a powerful and respected man. And he was materially rich. And yet the Lord Jesus instantly noted that he was lacking something.

It was true that the man was on a spiritual journey but the issue was that it was a superficial one. The man was only looking at the surface and not deeply probing his heart.

He was seemingly looking for fulfilment, peace and joy whilst trying to cling to the material things of this world.

The problem was that the man was bound to his material possessions. They were like a great weight dragging him down into the dark depths of the sea. In order to rise to the light at the surface he must cut away his earthly treasures and let them sink. He must be willing to give up everything he had in this world to follow Christ and in doing so store up treasures in heaven instead. It was of course a very radical thing to ask. For a rich man to give his wealth away. For a ruler and man of honour and prestige to humble himself and live to serve others. That's a hard teaching to take. But as we know to follow Christ requires our full and complete surrender and commitment. There is much to lose from a worldly perspective but everything to gain from an eternal one.

I am reminded of the words of Jesus recorded in Matthew's gospel.

For what profit is it to a man if he gains the whole world, and loses his own soul? (Matt 16:26)

The answer to the Lord's question is of course nothing. A short, perhaps happy and materially comfortable life followed by eternity in hell. This was the future that awaited this rich young ruler and anyone else who rejects Christ and tries to save themselves. Let us see how this episode concludes.

21 그때 예수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네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아라 그러면 네가 하늘에서 보물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남자의 대답은 그의 진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율법을 엄격히 지키는 것이 구원을 얻는 길이라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구약은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의인을 육체적 번영으로 축복하신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 관원은 아마도 자신의 부와 재물을 자신이 잘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고 계시다는 증거로 보았을 것입니다. 또는 단순히 그가 성인이 된 이후 내내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으니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라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께서는 그를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그의 진정한 성실함이나 진지함을 평가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보든지 감동하셨고, 사랑과 연민으로 가득 차셨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 사람을 바라보는 외부인은 그 청년이 모든 것을 가졌다고 볼 것입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사회적으로 높이 올라갔습니다. 그는 권위와 지위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는 강력하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물질적으로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그에게 무언가 부족함을 아셨습니다.

그 사람이 영적 여정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문제는 그것이 피상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남자는 겉만 보고 그의 마음 깊은 곳을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에 집착하면서 성취감, 평화, 기쁨을 찾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 사람이 자신의 물질적 소유물에 묶여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들은 그를 깊은 바다 속으로 끌어내리는 거대한 무게추와도 같습니다. 표면의 빛으로 올라가기 위해 그는 세상의 보물을 잘라내어 가리얏게 해야 합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렇게 함으로써 대신 하늘에 보물을 쌓기 위해 이 세상에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기꺼이 포기해야 합니다. 물론 매우 급진적인 요구였습니다. 부자가 자신의 재산을 모두 기부하는 것 통치자이자 존귀한 사람이 자기를 낮추고 남을 섬기며 사는 것 받아들이기 힘든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는 완전한 순복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잃을 것이 많지만 영원의 관점에서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마태복음 16:26)

주님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당연히 아무것도 아닙니다. 행복하고 물질적으로 안락한 짧은 삶에 뒤이은 지옥에서의 영원 이것이 이 부유한 젊은 관원과 그리스도를 거부한 채 자신을 구원하려는 애쓰는 모든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미래였습니다. 이 에피소드가 어떻게 끝나는지 봅시다.

22 But he was sad at this word, and went away sorrowful, for he had great possessions.

It's hard to read this verse and not feel desperately sad. We all like stories that have happy or uplifting conclusions. This story ends with neither.

The rich young ruler holds a unique place in scripture. He is the only man in the whole of the New Testament who went away sad from the presence of Jesus. The Lord Jesus Christ offered the man the gift of eternal life, but he turned away and rejected it. Warren Wiersbe in his commentary states it as follows,

“It is difficult to receive a gift when your fist is clenched around money and the things money can buy.”

This man you see was devoted to his wealth, his material possessions. His wealth took priority over his eternal destiny. He was not prepared to give it up in order to follow Christ. He was not willing to sacrifice in the here and now for treasures beyond measure in the future.

So at that particular moment walking away from Christ he felt great sadness. But that would be nothing compared with how he would later feel when having to stand before God with no possibility of eternal life.

Next time Lord willing we will see Jesus give the disciples further instruction on the perils of riches.

22 그러나 그는 재산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버렸다

이 구절을 읽고 극도로 슬퍼하지 않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는 행복하거나 고무적인 결론이 있는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이 이야기는 둘 다 아닙니다.

부자 청년 관원은 성경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는 신약 전체에서 예수님을 대면한 후에 슬퍼하며 떠난 유일한 사람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람에게 영생의 선물을 제사하셨으나 그는 돌아서고 가졌습니다. Warren Wiersbe 는 자신의 논평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돈과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에 주먹을 불끈 쥐면 선물을 받기 어렵다.”

당신이 보시는 이 사람은 자신의 부와 물질적 소유물에 헌신했습니다. 그의 재산은 그의 영원한 운명보다 우선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그것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래의 측량할 수 없는 보물을 위해 여기에서 현재 것을 가까이 희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는 그 특별한 순간에 그는 큰 슬픔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중에 그가 영생의 가능성 없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의 심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다음 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의 위험에 대해 더 많은 가르침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Things to think about

I have two comments to make from today's passage of scripture

1 Mere goodness is inadequate

I want you to imagine that you are given the task of going out around the streets of Anyang to carry out a survey. The survey has just one question.

The respondents are only permitted to answer with a yes or a no. The question is as follows, do you consider yourself to be a good person? What do you think the results would be? Overwhelmingly the results would be, yes. Generally speaking, most people consider themselves to be “good.” Not perfect of course, and from time to time most of us even admit to being bad and occasionally wicked. God of course would not agree with this assessment.

The rich young ruler considered himself a good man. By the standards of his day he was no doubt worthy and admirable. To the best of his ability he followed God's laws. He also held a position of social importance and was looked up to and admired. He was also wealthy. All of these things contributed to his idea that he must be acceptable to God. His error was in thinking that his goodness was adequate.

He believed that he was able to earn salvation through his own efforts. So many today are under this

same delusion. So let me be plain. As a sinner your “goodness” cannot save you. Don't ever think you can bring your good deeds and present them to God as a way of earning His favour. Your goodness to God is nothing but a filthy rag. This was why God had to send His Son into the world to die on the cross for sinners like you and me. Christ and Christ alone is the only way to eternal life. So let us put forever from our thoughts the idea that our good works are adequate. Let us instead focus our eyes on our Lord and saviour Jesus Christ.

오늘 성경 구절에서 두 가지 의견을 제시합니다.

1. 단순한 선행은 불충분하다

설문조사를 하기 위해 안양의 거리를 돌아다니는 임무를 받았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설문 조사에는 단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응답자는 예 또는 아니오로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신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압도적으로 결과는 ‘예’ 일 겁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때때로 우리 대부분은 자신이 나쁘고 때때로 사악하다는 것을 인정하기까지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러한 평가에 동의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부자 청년 관원은 자신을 좋은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당시의 기준으로 볼 때 그는 의심할 여지 없이 합당하고 존경할 만한 인물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그는 하나님의 법을 따랐습니다. 그는 또한 사회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었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는 또한 부자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자신이 하느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그의 생각에 기여했습니다. 그의 잘못은 그의 선행이 충분하다고 생각한 데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 분명히 말하겠습니다. 죄인으로서 당신의 “선행”은 당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선행을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바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대한 당신의 선행은 더러운 길러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과 나 같은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영생에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선행이 충분하다는 생각을 우리의 생각에서 영원히 지워버려야 합니다. 그 대신에 우리의 눈을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합시다.

2 Beware of the idolatry of material possessions

People often make the mistake of thinking that money itself is the root of all evil. What the bible actually teaches is that it is the love of money is the root of all kinds of evil. Money, and for that matter material things in general are essentially neutral. They can either be used for good or bad. We can be selfish and mean with what God has given us, or we can be generous and kind. So Jesus words to the rich young ruler are not designed to be applied universally to all people at all times. We are not all called to give everything we have away and live in poverty. However what is a universal teaching that applies to all believers throughout all history is that we are not to create idols. Jesus had identified where the problem lay for this young man.

For him his riches and great wealth had become an idol. They had taken the place of God. This was why Jesus spoke directly to this issue. We may have different idols, and we may well be convicted on whatever we have made an idol in our lives. However I think for many of us our material possessions are our idols. We may claim that we do not “love” our money, our cars, our homes or our expensive golf clubs. We may claim that we are just “enjoying” them. Is this really true? Ask yourself whether you would happily and joyfully give them up. That's a difficult question to answer honestly. All of us need to at times be brutally honest. We must act to remove anything that comes between us and God. The rich young ruler was unable to do this. What about you? Will you take radical action or will you too walk sadly away from Christ?

2 Beware of the idolatry of material possessions

사람들은 종종 돈 자체가 모든 악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성경이 실제로 가르치는 것은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돈, 그리고 물질적인 것들은 본질적으로 중립적입니다. 그것들은 좋거나 나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이기적이고 비열하거나 또는 관대하고 친절하게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자 청년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도록 고안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바치고 가난하게 살도록 부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역사를 통틀어 모든 신자들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가르침은 우리가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젊은이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내셨습니다.

그에게 그의 부와 막대한 재산은 우상이 되었습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우리는 다른 우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며, 우리의 삶에서 우상을 만든 것이 무엇이든 그것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중 많은 사람들에게 물질적 소유물이 우리의 우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돈, 차, 집 또는 값비싼 골프 클럽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주장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단지 그것들을 “즐기고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사실입니까? 행복하고 즐겁게 그것들을 포기할 것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솔직히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다. 우리 모두는 때때로 잔인할 정도로 정직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끼어드는 모든 것을 제거하기 위해 행동해야 합니다. 부자 청년 관원은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급진적인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슬프게도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시겠습니까?

